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관성 연구

이영선¹, 김수연^{2*}, 김혜지¹, 김한나²

¹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²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A Subjective Study on the Virtual Currency of the 20's Young Generation

Young-Sun Rhee¹, Su-Yeon Kim^{2*}, Hye-Ji Kim¹, Han-Na Kim²

¹Division of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²Division of Information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요약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전 세계 거래량의 10~3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가상화폐 열풍이 뜨거우며, 특히 상대적으로 금융투자 경험이 적고, 소득이 불안정한 20대의 가상화폐 구매 경험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20대 청년 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Q모집단은 인터넷 검색, 심층면접, 문현검토를 통해 총 33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고, 최종 51개의 Q진술문을 선정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40명의 P표본을 구성하여 Q-분류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유형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각 유형은 '투자수단', '미래기술', '도박 같은 놀이의 일종', '거품 같은 일시적 유행'의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명명하였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인식 차이는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가 후속연구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의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categorized the subjective recognition of 20's young generation about virtual currency into a few meaningful types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using the Qmethodology. For the Qpopulation, we selected a total of 337 samples which were derived from the Internet search,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survey, chose the final 51 Qstatements, and performed the Q-classification for the 40 P samples of 20's,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Then, we analyzed the results using the PC-QUANL program. From the analysis, we found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each recognition type, and, after classifying the recognition types into four, we named each of them as 'investment-vehicle' type, 'future-technology' type, 'kind of gambling-like plays' type, and 'foamy faddishness' type. We hope that this research result can contribute to follow-up research and social discussion as base materials.

Keywords : Q methodology, Recognition type, Subjective study, 20's young generation, Virtual currency

1. 서론

가상화폐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발행되거나
여타의 법화에 기반을 두지 않았으나 사용자에 의해 지
불수단으로 통용되며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그리고 교

환이 되는 디지털 가치의 척도이다[1]. 기존의 전자상거
래에서 쓰였던 판매자-금융기관-구매자 간의 거래가 아
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기 위해 사용
되는 P2P(Peer-to-Peer)방식의 인터넷 화폐로, 최초의 가
상화폐는 비트코인을 들 수 있다[2].

본 논문은 2018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Yeon Kim(Chosun Univ.)

Tel: +82-10-8667-9682 email: sooyoun3230@hanmail.net

Received May 14, 2018

Revised (1st June 7, 2018, 2nd June 7, 2018, 3rd July 7, 2018)

Accepted August 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우리나라는 2013년 인천의 한 빵집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시작되었고[3], 2018년 현재 국내에서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은 인터넷 매장을 포함하여 총 162 곳이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3분의 2정도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에서 10~30% 비중을 차지할 만큼 거래량이 매우 높은 편이며[5], 특히 2018년 가상화폐 연령대별 구매경험 조사에 따르면 20 대가 전체의 22.7%(30대 19.4%, 50대 8.2%, 60대 1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부터 대학 동아리로 가상화폐 자체를 연구하는 모임까지 생겨났다[7]. 이는 가상화폐 자체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한 경우도 있지만 24시간 거래가 지속되고, 짧은 기간에 등락의 변화가 일어나 모니터에 눈을 떼지 못하고 빠져드는 사람이 생기는 등 중독 현관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인한 20대의 자살사건 등이 보도되면서[8] 찬성, 반대, 규제, 용호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20대는 금융투자 경험 이 적고 소득이 불확실해 투자실패를 감당 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9]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학생들의 신규 가입이 끊이지 않고 있고, 커뮤니티 내에서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은 물론 자살을 암시하는 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1월 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의 급증으로 인한 시장과열 현상으로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의 위험성과 가상화폐에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였다[10]. Whitley(1999) 등은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필요한 자원을 얻지 못할 때 오는 심리적 압박감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11]. Horwood(2000)등은 초기 성인기 동안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노출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12], 우울, 절망 등의 부정적 정서는 자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13].

가상화폐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 제4차 산업의 전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특히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의 기술동향과 시사점, 가상화폐의 규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14-16] 등으로, 주로 기술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 현황 및 시사점에 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청년 취업률의 심각한 감소 등 청년세대들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투기열풍의 확산은 20대 청년의 자살 등 여러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다루거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무하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화폐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 등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와 관심이 요구되며 이에 실제 사회 구성원들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무지식이 중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투자에 대한 경험과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주관적 인식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다 여겨지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20대 청년세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Q방법론 활용의 타당성

Q방법론은 연구주제에 대한 태도나 견해를 연구자가 아닌 응답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카드의 진술 내용을 분류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조작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양적 연구방법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내면적인 의식이나 사고의 유형을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17]. Q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에 사용될 진술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된 진술문은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잘 드러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유형별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2.2 연구 설계

2.2.1 Q모집단과 Q표본의 구성

Q모집단 추출을 위해 인터넷 검색, 심층면접, 문헌검토를 병행하였다. 인터넷 검색은 4명의 연구자가 카페, 뉴스, 블로그 등의 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Q진술문을 추출하였고, 심층 면접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는 20대 대

학생 3명과 관심이 없고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20대 대학생 2명으로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모두 녹취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가상화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준비된 질문 외에도 면접 과정에서 보여주는 반응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의 정부정책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가

상화폐의 인식에 대해 총337개의 Q모집을 추출하였다. 구축된 진술문 중에서 Q방법론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와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고, 각각의 진술문이 범주화의 주제와 내용으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4명의 연구원들이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긍정, 부정, 중립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여[18] 주제에 관한 대표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진술 51개를 Q표본으로 최종 확정했다[Table 1].

Table 1. Q statements and Z value of each recognition type satisfying $Z \geq \pm 1.00$

NO	Q-Statement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1	It is to invest in the future as if we invest in good companies.		2.04		-1.94
2	Virtual currency will be accepted as money, even if it takes time.		1.61		-1.44
3	If you can keep waiting, you can make money with virtual currency				-2.23
4	I would have bought virtual currency if I knew it earlier.	2.03	1.41	-1.29	
5	A person who did not invest in virtual currency is a 'stupid idiot who lost a chance'.	-1.03		-2.83	-1.81
6	Negative opinions are from those who do not know virtual currency.			-1.22	-1.86
7	The world becomes very convenient if virtual currency is commercialized,		1.92		-1.36
8	In order to develop new technologies such as virtual currency, side effects must be taken.		1.11		-1.32
9	I am jealous when I hear that people around me made money with virtual currency.	1.80	1.21		1.07
10	It is not right to ignore the new phenomenon about money and value.		1.37		1.23
11	Those who deal with virtual currency are pathetic.	-1.30	-2.00	-1.65	1.69
12	Virtual currency is just a speculative toy.				1.60
13	If the government does not regulate virtual currency, it is regarded as the delinquency of duties.				
14	Virtual currency is a bubble hidden by an invisible imagination.				
15	Virtual currency is an addiction.	1.73	-1.56	1.21	
16	The security credit of virtual currency is F.		-2.00		
17	Virtual currency has an overly advertised aspect in terms of anonymity and efficiency.				-1.05
18	Virtual currency causes relative deprivation.				
19	It is a very serious issue that the exchange encourages irrational investment in virtual currency.				
20	If you make big money with virtual currency, it will be difficult for you to get out.	1.87			1.12
21	Virtual currency reduces the work concentration of workers.	1.31		1.15	
22	We can only expect a serious drop of the virtual currencies.	-1.13	-1.64		1.57
23	Quitting investing in virtual currency will be harder than quitting smoking.				
24	Virtual currency has no reality. Thus, it is different from the investments such as land, stocks, and gold.				1.55
25	Virtual currency is no different from "Sea story".			-1.23	
26	Virtual currency is a wicked substance that will deepen the harmful effect of capitalism				
27	Virtual currency causes Korean people to have excessive obsession with 'money'.	1.47		1.28	
28	The speculative frenzy of virtual currency is excessive.			2.00	1.05
29	Virtual currency is just like the cyworld acorn.	-1.14			
30	Virtual currency is a valuable future technology, but it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1.03		
31	The interests of majority focus on 'Can I make money if I invest now?'	2.25	1.13	1.28	1.17
32	Virtual currency seems to have faded the meaning of labor.			-1.03	
33	I have no interest in virtual currency.	-1.38		1.51	
34	I don't know about virtual currency.				
35	I'm tired of seeing an article about virtual currency now.				
36	Virtual currency collapse and surge are irrelevant to the government.	-1.66			
37	Government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s rather an opportunity	-1.22			
38	Income from virtual currency must be taxed.				
39	The virtual currency collapse is due to President Moon Jae-in.	-1.64		-1.86	-1.54
40	Virtual currency needs some control.	1.34		1.46	
41	If the government closes the exchange, it is the worst way of solving the problem.		1.13		
42	We should not bury new revolutionary technologies to calm bubbles and speculation		1.24		
43	Although virtual currency is good, it has to disappear in Korea.	-1.34	-1.27	-1.08	
44	No country falls into virtual currency like Korea.				
45	We fall into virtual currency as jobs are unclear.				
46	A person who is adaptive to change will not deny virtual currency		1.19		
47	If the investment object of virtual currency is gone, we may look for other dangerous 'investment objects' such as lotteries and casinos.				
48	Relatively, college students do not reserve enough power to cope with investment failure due to little financial investment experience and uncertain incomes.			1.82	
49	People have to invest all their time, not just money only.				
50	People who earned money with virtual currency investment must be aware of that it was not from their ability but their luck.			1.74	
51	Saving through labor is a shortcut to success in life.			-1.07	

2.2.2 P표본 선정

P표본은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청년 40명으로 선정하였다. Q-sorting 후 연령, 성별, 전공, 직업, 주식투자 및 대출 경험 여부와 평소 재테크 여부 등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익명성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설문응답에 대한 충실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2.3 Q 표본 분류(Q-sorting)

본 연구는 2월~3월에 약 4주간에 걸쳐 Q 표본분류가 행해졌다. Q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 카드를 읽은 후 긍정(+), 중립(0), 부정(-)의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진술문 중 가장 긍정적인 의견이나 부정적인 의견의 진술문 카드를 골라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고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배열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P표본에서 가장 부정 또는 긍정하는 각 2개의 진술문을 선택 주관적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Fig.1].

Item	2	2	3	4	5	6	7	6	5	4	3	2	2
point	-6	-5	-4	-3	-2	-1	0	1	2	3	4	5	6

Fig. 1. Q-Sort(N=51)

2.2.4 Q 자료처리 및 분석

P표본에 대한 조사 완료 후 수집된 자료를 Q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경우(-6)를 1점으로 하고 가장 긍정하는 경우(+6)는 13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부여된 각 점수는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고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Q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 4, 5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그 결과 각 유형의 고유성이 인정될 수 있는 아이겐값과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3개의 요인수를 선택하였다. 제2유형에 적재된 Q소트 중 약 47%가 반대 극에 적재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독립시켰기 때문이다[Table 3].

각 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전형적인 사람의 면접조사 내용을 합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각 유형을 명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형분석

본 연구 결과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전체 약 41% 설명력을 가진다[Table 2].

Table 2. Eigen value

	Type I	Type II	Type III
Eigen values	9.5179	4.4069	2.6091
Variance	.2379	.1102	.0652
Cumulative	.2379	.3481	.4133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152 ~ .446 이었으며, 제 2유형과 제4유형의 상관계수는 -.41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 2유형에 적재된 Q소트 중 47%가 반대 극에 적재되어 있어 이것을 하나의 요인으로 독립시켰기 때문이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 I	Type II	Type III	Type IV
1	1.000	.316	.446	.381
2		1.000	.152	-.416
3			1.000	.368
4				1.000

연구대상자 40명 중 제1유형에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각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은 제1유형은 04번, 제2유형은 17번, 제3유형은 27번, 제4유형은 40번이었다. [Table 4].

이상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에 대한 20대 청년세대의 주관적 인식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유형에 대해 ‘투자수단’, ‘미래기술’, ‘도박 같은 놀이의 일종’, ‘거품 같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명명했다.

Table 4. Types, Factor weigh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

Type	No	Sex	Age	Weight	Type	No	Sex	Age	Weight
Type I (N=16)	02	f	21	.3065	Type III (N=14)	12	f	24	.7061
	04	m	25	1.1149		13	m	25	.8852
	06	f	27	.3243		14	m	24	.3902
	07	m	21	.6103		15	f	27	.6813
	08	f	27	.2573		19	m	24	.7787
	09	m	25	.5019		20	m	24	.2691
	10	m	25	.7193		22	f	24	.3847
	18	m	24	.1924		25	f	25	.5937
	21	m	24	.9598		27	f	25	.8873
	24	m	25	.4985		28	f	21	.2920
	32	m	27	.3794		30	m	25	.4333
	33	f	28	.3577		31	f	26	.4788
	36	f	21	.5137		34	f	20	.4706
	37	m	20	.4319		35	m	29	.5984
Type II (N=5)	38	f	20	.6298	Type IV (N=5)	03	f	22	.4045
	39	m	21	.3577		11	f	25	.2167
	17	m	25	2.1798		23	m	26	.6917
	16	f	27	1.0194		29	m	26	.6580
	26	f	25	1.1463		40	f	22	.9277

3.2 유형별 특성

3.2.1 제1유형(N=16): 투자수단

제1유형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Q31($Z\text{값}=2.25$), Q4($Z\text{값}=2.03$), Q20($Z\text{값}=1.87$), Q9($Z\text{값}=1.80$)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Q36($Z\text{값}=-1.66$), Q39($Z\text{값}=-1.64$)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제1유형에 가장 전형적인 대상자는(4번, 가중치 1.1149) 진술문(Q4, Q31)에 가장 동의, 진술문(Q39, Q43)에 가장 반대하였다. 유형1과 다른 유형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진술문 Q4(차이=1.959)는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였으며, Q33(차이=-1.653)은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유형은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으며 일찍 투자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속면담에서도 돈을 벌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고 일찍 투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나 손실은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만 너무 깊게 빠지거나 다른 일을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가상화폐에 대한 교육, 지식은 필요하다고 보며, 그렇게 된다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상에서 제1유형은 화폐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현재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고, 부동산과 같이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보는 유형으로 제1유형을 가상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보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3.2.2 제2유형(N=5): 미래기술

제2유형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Q1($Z\text{값}=2.04$), Q7($Z\text{값}=1.92$)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Q11($Z\text{값}=2.00$), Q16($Z\text{값}=2.00$)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제2유형에 가장 전형적인 대상자(17번, 가중치 2.1798) 또한 진술문(Q1, Q7)에 가장 동의, 진술문(Q15, Q16)에 가장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심층면담 결과, 거래단계를 줄여주면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새로운 화폐로서 그만큼 투자 가치와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사례가 보도되고 만약 밀수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형2와 다른 유형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진술문 Q1(차이=2.706)에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였으며 Q15(차이=-2.826)는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지 않았다. 제2유형은 화폐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미래의 기술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2유형은 ‘Q3(차이=3.129).’, ‘Q15(차이=-2.771).’에서 제3유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제2유형의 후속면담에서도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화폐 등장은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가상화폐가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실물 형태가 없다는 특성이 더욱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다가올 변화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은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과 다르므로, 중독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며, 지금의 비트코인 투기 시장은 정부의 규제와 언론에 노출되는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듯해서 조금은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제2유형은 가상화폐를 신기술 제품으로 보

며, 화폐 혁명의 하나로 보는 유형으로 제 2유형을 가상화폐를 ‘**미래기술**’로 보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3.2.3 제3유형(N=14): 도박 같은 놀이의 일종

제3유형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Q8($Z\beta=2.00$), Q48($Z\beta=1.82$), Q50($Z\beta=1.74$), Q15($Z\beta=1.21$) 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Q5($Z\beta=2.83$), Q39($Z\beta=1.86$), Q11($Z\beta=1.65$)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유형3과 다른 유형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진술문 Q33(차이=2.201)에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였으며 Q4(차이=-2.457)는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1유형과 가장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면담에서는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 자체의 패턴이 무너질 것 같아서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번 큰돈을 번다면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것처럼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고, 또한 신기루와 같아서 너무 심각하게 쫓아보면 결국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노력 없이 돈을 몇 배로 벌게 되면 취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한방의 역전을 노리는 사람 또한 있겠지만 주변에서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이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더 큰 금액을 투자하고 한번 돈을 크게 벌면 또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여유 돈으로 해 볼 수 있는 놀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투자하지 않은 것이 아쉽거나 상대적 박탈감은 들지는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상에서, 제3유형은 가상화폐가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중독성이 있는 투기수단으로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이에 제3유형을 가상화폐를 ‘**도박 같은 놀이의 일종**’으로 보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3.2.4 제4유형(N=5): 거품 같은 일시적인 현상

제4유형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진술문으로 긍정적인 진술문은 Q11($Z\beta=1.69$), Q12($Z\beta=1.60$), Q22($Z\beta=1.57$), Q24($Z\beta=1.55$) 등이며, 부정적인 진술문은 Q3($Z\beta=-2.23$), Q1($Z\beta=-1.94$), Q6($Z\beta=-1.86$) 등으로 나타났다[Table 1].

제4유형에 가장 전형적인 대상자(40번, 가중치 .9277)는 Q9, Q11에 가장 동의하고 Q1, Q5에 가장 반대하였다. 유형4와 다른 유형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진술문 Q11(차이=3.337)에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였으며 Q1(차이=-2.601)은 다른 유형보다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2유형과 가장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제로에 가깝고, 앞으로도 화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후속면담에서도 가상화폐는 사용가치가 있는 여러 자산들과는 다르게 화폐의 역할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재가치와 사용가치가 없는 네델란드 툴립버블과 다를 바 없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언젠가는 화폐의 대용품으로 사용될지 모르나 현 상황과 같은 관심은 일시적인 유행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심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다 정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제4유형은 전통적 화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상화폐는 미래에도 화폐로 사용될 수 없는 네델란드 툴립버블과 같은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제4유형을 가상화폐를 ‘**거품 같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대 청년세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개로 분류되었다.

첫째, 가장 많은 대상자가 속해 있는 제1유형은 가상화폐를 ‘**투자수단**’으로 보는 유형으로, 가상화폐를 부동산과 같이 투자 가치가 있는 대상의 하나로 보는 유형이다. 기성세대처럼 큰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없으나, 재무지식이나 자산이 부족해도 간편하게[19] 사고팔고 매매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가상화폐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젊은 층의 돈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이유가 접근이 쉽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20]. 이러한 기대감은 가상화폐가 폭락하거나 예상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면, 무기력 등의 심리적 증상과 더

불어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킴으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8,12].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게는 우울 및 자살충동 등과 같은 심리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투자전략과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제2유형은 가상화폐를 ‘미래기술’로 보는 유형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은 현재는 투기성 자금의 유입으로 도박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화폐의 효용이 커짐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 상승의 도구로서 그 전망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방안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상화폐 궁정론[21-22]의 입장과 일치하며, 가상화폐 거래는 부정한다고 부정되는 영역이 아니며 자본주의의 자유경제체제에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23]. 또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가상화폐는 정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24]. 그러나 가상화폐를 통해 사기 탈취 등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와 관련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16], 블록체인과 같은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제3유형은 가상화폐를 ‘도박 같은 놀이의 일종’으로 보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며 산업 발전에서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과 가상화폐 특성상 24시간 거래하기 때문에 한탕주의 심리에 현혹되어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25-26]. 실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의 모호한 대책과 규제가능성으로 그 가치가 널뛰기하며 일종의 도박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있다[27]. 이처럼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부각된다면, 유통에 실패를 하게 되고 대안화폐로 빌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28]. 따라서 이 유형을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장기적인 활용 및 성장을 위해 정부가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투기적 수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제4유형은 가상화폐를 ‘거품 같은 일시적 유행’으로 보는 유형이다. 이는 가상화폐의 부정론[29]의 입장과 일치하며,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고 경제적 가치도 없다.’는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30]. 선행연구에서도 가상화폐는 화폐의 주요 기능인 가치저장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로 발전하기는 어려우며 금과 같은 실물화폐와는 달리 가상화폐의 가치는 참여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버블 붕괴와 같은 문제도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1].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20대들의 인식이 ‘좋다’, ‘나쁘다.’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현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인식차이로 인해 갈등과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각 유형 특성에 맞게 논의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접근은 새로운 화폐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공청회나 교육을 통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공론화하여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 투자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특성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로 가상화폐 교육을 통한 20대 청년세대의 인식변화 연구 및 각 세대간의 주관적 인식을 비교해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European Banking Authority, Warning to consumers on virtual currencies, 2013.
- [2] H. S. Yang, Y. M. Kwon, "Internet Money - Bit Coin Trends",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Vol.19, No.1 pp.28-36, 2015.
- [3] J. H. Baek, "Virtual currency Bitcoin Landing first store to trade bakery", JTBC NEWS, December, 2013.
- [4] A. R. Cho, J. D. No, Although the fear of closing has decreased. "Payment is still a long way off", The Korea Economic Daily, January, 2018.
- [5] B. G. Min, Y. G. Sung, W. I. Park,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Bit Coin and Block Chain.", Issues &

- Diagnostics, No.307 pp.1-27, 2018.
- [6] Korea Financial Investors Protection Foundation, 2017, Virtual Money Users Survey Results, 2018.
- [7] S. G. Ryu, "Great Plains' Chin Daeje, Virtual Money and Block Chain 'Between the Ideals and the Reality", Sports Q, 2018.
- [8] K. T. Kim, "Virtual currency" 70 million won to 10 million won, "Anger, melancholy", Financial news, 2018.
- [9] G. J. Kim, "Money Attitudes and personal Finance of College Students", Consumer Culture Research, Vol.6, No.3 pp.33-50, 2003.
- [10] S. C. Park, H. G. Park, D. W. Shin, Pay attention to these companies when investing in P2P loans, Supervisory Bureau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C), 2018.
- [11] E. Whitley, D. Gunnell, D. Dorling, G. D. Smith, "Ecological Study of Social Fragmentation, Poverty, and Suicide", *British Medical Journal(Clinical research ed.)*, Vol.319, No.7216, pp.1034-1037, 1999.
DOI: <https://dx.doi.org/10.1136/bmj.319.7216.1034>
- [12] D. M. Fergusson, L. J. Woodward, L. J. Horwood, "Risk factors and live proces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Vol.30, No.1, pp.23-39, 2000.
DOI: <https://dx.doi.org/10.1017/S003329179900135X>
- [13] G. H. Jo, H. J. Lee, "A Content Analysi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cause and intervention of suicid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social welfare education, Vol.22, No.22 pp.105-133, 2013.
- [14] H. K. Kang, "To protect potential investors in the KOSDAQ market A Study on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Retirement System", Korea University, 2013.
- [15] S. Y. Jeong, "Virtual Currencies and VAT Issues", Korea International Taxation Association, Vol.32, No.1, 2016.
- [16] Y. D. Song, S. H. Jang, "Cas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for each type of crime related to bit co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14 No.3, pp.141-166, November, 2017.
- [17] H. K. Kim, "Subjectivity Research Q Methodology and Theory", Korean Subjectivity Research Society, Vol.1, pp.15-33, 1996.
- [18] H. K. Kim, "Q Methodology and Theory : P Sampling and Q Sorting", Korean Subjectivity Research Society, Vol.15, No.15 pp.5-19, 2007.
- [19] G. J. Kim, J. H. Hong, "Financial knowledge and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behaviror of college students",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pp.117-122, 2002.
- [20] S. J. Hwang, "Virtual currency money, 2030 households, investment of 1~5million won", newspim, 2018.
- [21] S. J. Kim, "Virtual mone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②Shade of virtual money", Korean Christian Bulletin, 2018.
- [22] W. S. Kim, "Other Voices Yushimin vs Jeong Jae-seung, Virtual Currency-Block Chain", wikitree, 2018.
- [23] S. M. Ko, "The 'virtual currency specialization and the virtual money special district' contrary to 'the unconditional closing of the virtual money exchange", Justice Administration, Vol.59, No.3 pp.2-22, 2018.
- [24] J. Y. Jun, E. J. Yeo, "Understanding Bitcoin : From the Perspective of Monetary Economics", Korea Business Review, Vol.18, No.4 pp.211-239, November, 2014.
- [25] J. H. Yoon, "Virtual Currency 'Flower Road and Dirt Road", The Yeongnam Ilbo, 2018.
- [26] G. R. Lee, "Anxiety about returning profit All day virtual money chart only. Followers of addicts", Market economy newspaper, 2017.
- [27] M. H. Song, "Traditional Ownership Theory and the Future of Virtual Currency", Journal of Korean Law, Vol.5, pp.33-56, 2018.
- [28] S. H. Gu, P. Wang, T. Sun, "A Study of the Factors Influencing Acceptance of Virtual Currency: Focused on Technology Accepta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7, pp.4122-4131, 2014.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7.4122>
- [29] J. S. Kim, "Bitcoin, Warren Buffet 'Rat', Bill Gates 'Fool Theory'", Seoul Economy, 2018.
- [30] G. B. Bin, "Will virtual money be money?", kinews, 2018.
- [31] Y. S. Jeon, S. H. Yun, W. Y. Cha, "Should Korean economy be similar to Long term slowdown of Japan economy?",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Vol.2014, No.6, pp.1-105, 2014.

이영선(Young Sun Rhee)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의료사회복지

김수연(Su Yeon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5년 4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정신건강사회복지

김 혜 지(Hye Ji Kim)

[정회원]



- 2016년 8월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사)
- 2018년 2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과(석사과정)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정책

김 한 나(Han Na Kim)

[정회원]



- 2015년 2월 : 광주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사)
- 2017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학사)
- 2018년 2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과(석사과정)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의료사회복지